

보도시점 2026. 10. 27.(화) 18:00 배포 2026. 10. 27.(화) 06:00

농식품부 장관, 보은군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나타난 지역사회 변화 확인

- 보은군, 청년 창업 및 지역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유기적 연계를 통한
우수 정책 모델 창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27일(화) 오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기본소득’) 시행 지역인 보은군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은군 기본소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 나타난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보은다락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카페 머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박덕흠 국회의원, 최재형 보은군수, 지역주민·상인 등이 참석하여 보은군의 기본소득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24년 설립된 사회연대경제조직

아울러 카페 머문을 운영하고 있는 보은다락협동조합이 충청대학교와의 업무협약('25.6월)을 통해 지역특산품인 대추를 활용한 음료 레시피를 개발·판매하고, 이를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토록 하여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함과 더불어 기본소득 이후 보은군에 나타난 변화와 기대감 등 현장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후 송 장관은 보은전통시장에서 보은의 제철 나물과 못난이 농산물 등을 활용한 로컬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빵잎마을’(대표 홍로아)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보은군 자체사업인 '26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이 창업하여 지난 10월 2일 문을 연 기본소득 사용처이다. 홍 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가 지역 청년의 창업과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예비창업자 발굴 및 기창업자 지원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보은군 청년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보은군 자체사업

이어서 보은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새로 마련된 ‘결초보은 마중상점’을 둘러보았다. 결초보은 마중상점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주민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한 곳에 담은 복합 오프라인 공간이다. 방문객 누구나 편하게 이용 가능한 카페와 지역 농산물 판매 공간뿐 아니라, 주민 활동 및 각종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교육·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액션그룹**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직접 기획·제작한 상품과 콘텐츠를 기본소득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전시·판매하는 등 기본소득과 함께 지역 내 생산·소비가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 농촌의 자원과 시설·인력·조직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사업

**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육성한 협동조합 등 주민 참여 공동체

보은군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등 자체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정부 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를 육성하고 그들이 활동할 거점 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본소득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 판단되며, 앞으로 기본소득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장관은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계신 보은군과 주민 여러분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기본소득과 함께 주민이 지역을 살리는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의 창업과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부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부내 및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아름 (044-201-2811)
	농촌소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곤 (044-201-2826)

